

‘메르스 불황’에 목포 경제 아우성

섬 관광객 작년의 80% 수준...목포역 이용객 58% 급감 여행·숙박업계 직격탄 속 여름 특수 대책 마련 전전공공

지금까지 목포시는 ‘중동 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양성이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메르스 정경구역’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목포시가 ‘수동형 예방’에서 직접 시민과 상담하는 ‘밀착형 맨투맨 방식’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지역경제.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 4월 KTX 개통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지역경제가 빈사상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에 메르스가 지역경제에 미친 파장과 업계 반응 등을 점검해 봤다.

◇지역경제 미친 파장=메르스 관련 구체적인 피해 수치가 드러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먼저 여객선을 이용한 다도해 섬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관련 업계가 극심한 불황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수학여행 시즌을 맞았으나 줄줄이 취소돼 제주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피해가 컸다.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목포항을 이용한 배깅 여행객은 17만여 명. 강병근 목포항 운항관리실장은 “지난해 6월 대비 이용객의 80% 수준으로, 세월호 참사 때보다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

다”고 말했다. 목포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발생 이전 한 달 동안 하행 8만4000명, 상행 8만7000명에 달했지만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현재, 상·하행 3만5000명 수준에 그쳐 무려 58%나 급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국과 제주 관문으로 떠오른 무안 국제공항도 직격탄을 맞았다.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한 ‘요커’(중국 관광객)들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5월의 경우 전세계 27편에 3857명이 입국했으나 6월에는 8편에 1088명만이 입국해 7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텐진(天津)을 오가는 정기노선은 전면 중단됐다.

◇관련 업계 반응=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여행·숙박업계다. A호텔의 경우 6월 한 달간 1000실에 가까운 중국 관광객 객실 예약이 전부 취소됐고, 행사 역시 대폭 축소돼 메르스 발생 이전과 비교해 월 매출이 60%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B호텔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 호텔 관계자는 “관(省) 주도 행사는 취소되더라도 언젠가 다시 열려 문제가 안 되지만 가족단위 행사나 모임 등은 해당 날짜가 의미가 있



목포시는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메르스’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건소 직원들이 목포역에서 예방 수칙을 담은 전단지외 손 세제제를 배포하고 있다.

때문에 지나가면 끝이라서 어려움이 많다”며 “기업은 제품을 생산해 팔리지 않더라도 재고로 남지만, 호텔은 대실이 안 되면 곧바로 손실로 직결돼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고충을 털어냈다.

지역의 C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업계는 사실상 초도화 상태.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업체가 나오고 있다”면서 “관광버스를 매물로 내놓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다음달까지 지속되면 여름철 성수기는 물론 건너 가 영세업체들의 도산 우려에 대한 위기감마저 고조되

고 있다. 또 여름 휴가철을 앞둔 아웃도 등 지역 의류업계도 특수가 실종된 가운데 메르스 여파가 7월까지 이어질까 전전공공하고 있다.

요식업계도 울상이다. “인건비 때문에 6월 한 달을 어떻게 넘겨야할지 고민”이라는 한결같은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 주도 행사 취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민간 행사만큼은 자율에 맡기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호소의 목소리가 높다. /글·사진 목포=고규석·김준석기자

박홍률 목포시장 민선 6기 1년 간담회



“재정 건전화 통해 부채 320억 감소 기업 유치 등 적극 세일즈 행정 박차”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목포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복리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박홍률 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마른 수건을 짜는 각오로 재정 건전화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 지난 1년 동안 부채 320억원이 감소했다”면서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당초 계획보다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박 시장은 “목포 세라믹산단과 대양산단 분양을 위해 재정 투자설명회 개최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으로 세라믹산단에 2개 기업의 분양을 성사시켜 일자리 창출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했다.

시는 그동안 ▲민선 6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 최고등급(SA) ▲2015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

가 최우수기관 선정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상 ▲지방자치단체 청사 에너지절약 평가 최우수기관 등 정부와 전남도, 민간단체로부터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받는 광목달만한 성과를 거뒀다.

박 시장은 “전남 지방공무원교육원 목포 이전, 전남 진로교육원 목포 설립, 국립김산업 창조혁신 연구센터와 천일업 수출전문단지 목포에 건립·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외 목포시의 최대 현안인 유달산~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설치, 대학부지 용도 변경, 대양일반 산업단지 분양, 도시재생사업 등 민선 6기가 안고 있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서민시장을 표방한 박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서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땀을 흘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한 불란’(信汗不亂)의 자세로 앞으로도 더 멀리 내다보고, 더 넓게 교류하고, 더 깊게 소통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목포항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市·목포해수청, 국비 예산 확보 등 긴밀 협조키로

목포시와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이 목포항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양 기관은 지난 24일 해양수산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가진데 이어 26일에는 박홍률 목포시장과 김형태 목포 해수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 기관의 수장과 실무자들이 각종 현안사업들의 효율적인 추진과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날 목포시는 9개 안건을 내놨고, 해수청은 6건을 의제로 삼아 현안 사업 12건(3건 중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신항 배후부지 2단계 개발 총사업비 445억(전액 국비) 가운데 착공에 필요한 사업비 59억원과 진입도로 직선화 사업 설계비 13억원을 내년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국가 어항으로 지정된 삼진항 개발을 위해 예산이 적기에 반영되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목포항내 방치 선박과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갖바위 해상 방치 선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물양장과 내항 등에 방치된 쓰레기는 시에서 수거한 후 수산청에 인계하기로 합의했다.

신항 석탄부두 분진대책에 대해서는 ‘선(先) 분진예방 대책수립·후(後) 주민 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을 이해·설득시키고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평화광장 앞 해상 갈치잡이 민원은 해수청이 낚시행위를 허용할 경우 시는 이에 동의하고, 바지선 이용에 대해서도 허가할 경우 안전장비와 시설 점검 등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레이저중심 국가어항으로 지정받아 국비 460억원을 전액 지원받는 목포 삼진항 전경.

북항 노출공원 주차장 조성은 기재부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에 양 기관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외 해수청은 국제 여객터미널 무인 민원발권기 설치와 남항 관광선 부두 선박 46척이 적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북항 배후부지 하수도 시설물의 조기 인·수·인계 필요성을 역설하고, 신항 배후부지 관련 총괄 협의부서 조속 지정

을 요구해 시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박홍률 시장은 “해양항만 관련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과 양 기관 상호간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목포항 경쟁력 강화는 물론 목포항 활성화를 위해 선화주 유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연안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김준석 기자 yousou@

목포시 시민소통위 발족...위촉장 전달·정기회 개최

박홍률 목포시장의 ‘톡 톡(Talk)’ 뒤는 소통 투어가 시민들 사이에서 ‘감동 행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가 정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목포시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40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등 당연직 3명과 위촉직 37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위원은 시민 공모를 통해 10명을 선별했고, 나머지 27명은 시의

원을 비롯해 학계, 예술·체육계, 환경, 여성계,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기업·자영업,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및 정책제안 ▲공약추진에 관한 사항 및 주요정책 자문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시는 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JTC GOLF 2015 골프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오픈기념 100구좌 한정판매상품 마감임박!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대전, 충남 명문골프장)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VAT포함 금액입니다.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062) 415 - 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경남.부산지역) 051)916-9700
경남(경남.부산지역) 051)916-7070
대전(충남.대전지역) 042)320-7800
대구(경북.대구지역) 053)248-6666
울산(경남.부산지역) 052)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G B M S
MALL M 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BOOKING H T MALLS C G
MALLS C G
호텔/콘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타워벨리스점)
http://tp.kai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